

백마강에 흐르는 백제(百濟)문화의 숨결

강 육
자유기고가

잊혀진 백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부여(扶餘)는 1,400여년전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역사의 고장이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고도(古都) 부여는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과 함께 시내 동서남북으로 백제 문화의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다. 6왕 123년간(538~660) 백제의 수도로 옛 이름은 사비, 또는 사부리라고 불렸다.

부여에서 처음 마주치는 것은 시내 사거리 중앙에 서있는 늙은 계백장군의 동상이다. 말 잔등 위에 올라 탄 용맹스런 계백의 모습을 보면, 황산벌에서 5천여명의 결사대와 함께 나당연합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던 그 때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시내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걸으면 부소산성에 다달을 수 있다. 부소산성(扶蘇山城)은 부여의 진산인 부소산에 약 1.5km에 걸쳐 축조된 성이다. 해발 100m 쯤 밖에 되지 않은 낮은 구릉으로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고구려 군사를 방어하기에 알맞게 된 지형이다. 이 산성은 천연의 요새지로 백제 성왕 때인 538년에 웅진(熊津=공주)에서 이곳으로 천도를 하면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한다.

부소산 정상에서 아래를 보면 강이 시가지를 활처럼 절묘하게 에워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의 천리 물길은 동학군의 함성이 깃든 곱나루를 스쳐 공주에 이르고, 다시 부여 땅에 이르러 백제의 한복판을 흐르다가 이곳에 이르러 백마강이 된다.



백마강(白馬江)은 그 옛날 백제의 흥망성쇠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강으로 강폭이 넓고 흐름이 완만하며 주변과 어울려 빼어난 경치를 보여준다. 지금은 고란사 아래 강나루에서 수북정까지 2.5km를 오가는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다.

부소산성에 들어서서 바로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삼충사(三忠祠)가 있다. 백제 말의 충신 성충, 홍수, 계백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으로 모두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현대에 와서 지어진 것들이다.

백마강을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육모지봉의 백화정은, 부소산 가장 높은 곳인 사자루 바로 아래쪽 절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휘둘러 가는 백마강의 모습을 보면서 강바람에 땀을 식히기에 안성맞춤이다.

아래쪽에는 낙화암(落花岩)이 있다. 백제가 멸망하던 660년 수많은 궁녀와 백제여인들이 꽃잎처럼 백마강으로 떨어져 내린 곳이다. 낙화암은 바로 백제여인의 굳은 절개와 고귀한 충절의 표상이 되고 있다.

낙화암은 40m 높이의 절벽으로 「삼국유사」에서는 떨어져 죽은 바위, 타사암(墮死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가파르게 계단 길로 내려가면 왼쪽에 유명한 고란사(皐蘭寺)가 있다. 법당 한쪽에는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물을 한번 맛보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대고 있다.

왕에게 이 약수물을 올릴 때 반드시 띄웠다는 ‘고란초’는 암벽에서 자생했으나 현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부소산성 서쪽으로 백마강가에 있는 ‘구드래 나루터’는 현재 국민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구드래는 백제 사비도성을 외국 사신들이 드나들던 옛 포구였던 곳으로 지금은 백마강에 유람선이 오르내리는 곳이 되어 더욱 유명하다.

지금은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구드래는 달밤은 밤에 백제의 옛 정취를 고요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정림사지(定林寺址)는 삼국시대의 절터로 부여읍 동남리에 있다. 사적 제301호로 지정된 정림사지는 1942년 절터를 발굴했을 때에 태평 8년 무진 정림사대장당초(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라고 새겨진 고려 초기 기와 조각이 발견되어 이 절이 정림사이며, 이 기와가 1028년의 것임이 밝혀졌다.

보통 백제 오층석탑이라 불리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국보 제9호로 절의 경내 한가운데 있으며 높이가 8.33m에 이른다.

백제 말기의 화강석 석탑으로 현존하는 백제 석탑 중의 하나인 이 탑은 전체적으로 장중하면서도 격조높은 균형미를 보이는 걸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보물 제108호인 정림사지 석불좌상은 고려시대의 화강석 석불로 극심한 마멸과 파괴로 형체만 간신히 남아 있다.

궁남지(宮南池)는 우리나라 연못 가운데 최초의 인공 조원(造苑)으로 백제 무왕 35년(634)에 축조되었다. 경주의 안압지보다 40년 앞서 만들어졌으며 백제의 빼어난 조경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사적으로 일본 아스카시대 정원기술의 원조가 되었다.

부여에서 논산 쪽으로 2.5km 떨어진 능산리(陵山里)에는 백제시대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분군이 있다. 왕족 또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 7기는 지표가 전혀 없어 누구의 무덤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 능산리 고분들은 이미 1915년부터 일본인들이 발굴 조사했는데 그 중 1호 고분에는 사신을 그린 벽화가 발견되었다. 벽화의 수법은 고구려 강서 삼묘와 만주 통구 사신총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1993년 12월 12일 부여읍 능산리 고분 옆에서 백제 유물 중 최고의 수준으로 꼽히는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가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높이 64cm, 목통지름이 19cm인 이 향로는 백제인의 사상과 종교관을 예술적으로 함축 승화시킨 걸작품으로서 세계적인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찬란함은 금성산 기슭에 자리한 국립부여박물관에 가서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선사시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 까지 11,000여점이 넘는 귀중한 유물이 소장, 진열되어 있어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베일 속에 묻혀있는 백제의 왕도 부여에는 이밖에도 군창지, 군수리 사지, 부여나성, 장하리 3층석탑, 성흥산성, 대조사, 수북정, 자온대, 무량사, 만수산 자연휴양림 등 숱한 문화 유적과 볼거리를 갖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한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의 뿌리 없이는 민족문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내 고장 문화 유산을 가꾸고 이해하며 후세에 길이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부여를 여행하면서 망각 속에서만 있었던 백제인들이 남겨 놓은 값진 문화유적들이 이곳 여기저기에 고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에서 풍성한 문화의 향기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신라 천년 사적을 지켜온 경주가 그 수많은 문화유적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곳 백제의 부여 유적은 원 모습이 사라지고 희미한 흔적들로만 남아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백마강은 백제 역사 이전부터 지금까지 쉬임없이 흐르고 있다. 또한 백제는 멸망했지만 그 유적들은 남아서 그 옛날 사비시대의 영화를 아련히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격월간 “**地方稅**”는 세정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세정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 · 논문

세정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논문 등

■ 우수세정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세정활동이나 우수세정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세정수필

세정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세정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보낼 곳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혁신전략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02)3274-2011
Fax. 02)3274-2009
E-mail. gregori61@hanmail.net

“**地方稅**”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地方稅

2007년 제 5 호
(통권 제 103 호)

발행인 권혁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김동완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편집위원 원윤희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김공박 | 도시행정발전연구소 소장
김치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
서승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강민구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장
김외석 |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5(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02)3274-2011
(행정) 1990-5383, 5384

발행일 2007년 10월 1일

디자인 · 인쇄 영흥인쇄